

2022년, 건강과 행복, 좀 더 나은 삶으로!

존경하는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조합원 동지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호랑이 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떠오르는 태양과 호랑이의 기운이 동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한 상황 속에서 우리 공동체는 지난해부터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동지 여러분의 지혜와 용기, 단결을 통해 극복해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얼음판 걷듯 감내해오신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전합니다.

올해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역시 격동의 시간이 예정된 듯합니다. 생존터를 위기에 내몬 폐단들을 철거해야 할 것이며, 우리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새로운 리더십을 수립해야 할 중차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직원사회의 몫이며 충분히 성취할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동지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월을 성찰하여 오늘의 실천계획을 세워 미래를 개척하도록 제 18대 노동조합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시금 2022년, 호랑이 해에는 한 분, 한 분 동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성취되고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제18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이철환

새해 마음

새해에는 앞서가는 조금한 마음보다
나직하게 뿌리 힘을 더 키워가기를

새해에는 자꾸 사나워지는 마음씨가
흰 눈 속에 묻힌 새싹처럼 순해지기를

새해에는 세상에 맞춰가던 마음결이
얼어붙은 폭포처럼 단호하게 흐르기를

새해에는 소란한 마음의 소리들이
눈부신 설원의 침묵으로 빛나기를

새해에는 밖으로 먼저 새것을 쫓기보다
내 안의 오래된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 詩 박노해(2016)